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영성이 풍부한 민족

성경: 역대상 17장 7-14절

Tag:

7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 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8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9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 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10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네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11 네 생명의 연한이 차서 네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네 뒤에 네 씨 곧 네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12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3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네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14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대상17:7-14)

우리는 영성이 풍부한 민족이다.

영성이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필요한 자질만은 아니다.

예를 들면 음악성이 풍부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

음악성이 풍부한 사람은 태생적으로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

기도 하지만, 꾸준한 연습으로 기량은 더욱 높아진다.

재능이 있기 때문에 갖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음악을 통해서 성취감을 일구어낸다.

영성 또한 갖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다.

다른 재능과 같이 영성 또한 시대적인 요인, 역사적 요인, 지역적 요인, 문화적 요인, 가문의 요인 등 환경적 요인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콩 심은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나는 격이다.

요즘은 함부로 금수저 흙수저라는 잣대로 모든 사람을 단순하게 판단하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금수저가 경험하는 세계는 흙수저가 경험하는 세계와 10배는 차이가 난다.(아주 어렸을 때부터;김유하, 일라이 아들 김민수) 경쟁사회일 뿐이다. 금수저가 되려면 그 길을 가면 된다.(참고로, 기독교인이 되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다.)

영성이란 쉽게 말하면 사람이 갖추어야 할 모든 재능에 생명력과 창조력을 불어 넣어주는 일종의 신비스러운 힘이다.

또한 영성이란 그 사람의 재능의 한계를 초월할 수 있도록 하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힘을 감지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다른 지성이나 감성과 달리 영성은 차이가 있다. 영성이란 천부적 재능에 방점이 있지 않고, 당사자의 믿음의 크기에 방점이 있다.

영성의 기능 가운데는 초월적 상상력이 있는데, 이 영성의 초월적 기능은 믿음의 크기에 의해서 크게 좌우된다는 뜻이다.

객관적으로 똑 같은 사람이, 믿음이 작을 때는 할 수 없는 일을, 믿음이 크면 할 수 있게 된다. 예수님은 심지어 ‘이보다 더 큰 일도 하

리라'고 하셨다. (마17:20;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과거 우리나라는 외세에 많이 위축된 시절도 있었다. 중국을 대국으로 여기고, 스스로 소국이라 여겼다.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긴 것이다. 일제시대 때는 더 심했다. 서양문물을 받아들여 한껏 교만한 일본은 한국을 무시했다. (사실 일본 사람들은 약자를 철저히 무시하는 문화다. 자국 내에서도 지금도 여전하다. 무시함을 통해 자신의 자존감을 세우려는 억지스런 문화)

한국인은 약자를 무시하는 문화가 아니다.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야말로 뺨속까지 일본문화를 답습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긍심을 되찾기 시작했다.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동안은 한국적인 촌티를 지우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어느 순간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련된 것이 되어 버렸다. 요즘 김치는 사실 조선 김치가 아니다. 더 발전된 김치다. 과거 한복은 요즘 한복처럼 세련되지는 않았다. 요즘 한류는 모든 문화에서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무엇이 다른가? 나는 영성이 뛰어난 민족이라고 말하고 싶다.

한국인은 겉과 속을 모두 갈아엎고 싶어한다. 장인정신이다. 겉치레도 중하고, 속알머리도 중하다. (중국은 겉을, 일본은 속을 중시함)

둘 중에 하나만 하는 사람은 진정한 한국인이 아니다.

뭐든지 기초부터 털고 다시 시작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다 보니 모든 면에서 더 뛰어나게 되었다.

과거 일제시대에는 일본을 모방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 잔재는 남아있다. (심지어 아이스크림 과자에까지도)

그런데 더 좋게 만든다. 처음에는 형편 없는데, 시간이 지나면 더 좋아진다. 왜 그럴까? 영성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영성이 뛰어난 민족을 골라 역사의 마지막에 써먹기 위해

서 한반도 구석진 곳에 숨겨 두셨다. 그리고 위기 속에서도 언어와 문화와 자존심과 영성을 지키면서 살게 하셨다. 그리고 그 영성이 새롭게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주셨다. 드디어 영성의 초에 불을 붙이신 것이다.

조선의 영혼에 불이 붙자 대한민국이 되었다. 조선의 영성이 환골탈퇴한 계기는 기독교영성으로 불이 붙었기 때문이다. 이를 가장 확실하게 경험하신 분이 이승만대통령이었다.

남의 것을 그대로 철저히 모방하면서도 자신의 것을 지킬 줄 알고, 게다가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더 좋은 것을 만들어내는 민족이 배달의 민족이다.

앞으로 더 영성이 뛰어난 민족이 되려면 오늘 말씀을 믿어야 한다.

오늘 말씀은 다윗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대신 그에게 예언의 말씀을 들려 주셨다. 다윗은 그 말씀에 만족하며 감격하고 감사했다.

너를 목장 곧 양 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7)

다윗은 원래 목동(흙수저)이었다. 그것도 시골의 초라한 목동이였다. 양떼도 겨우 몇십마리에 불과했다. 그러나 다윗은 양들을 지극정성으로 돌보았다. 함께 먹고 잤다.(찢 흙수저) 이런 모습이 영성이 풍부한 모습이다.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어 왕의 기름을 붓게 하셨다. 다윗은 성령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 입었다.

8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네게만 들어 주리라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대승 하였다. 왜냐면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는 믿음이였다.

*다윗이 어느 때 골리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불타올랐는가?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할 때이다.

.다윗은 나가서 싸워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마땅한 일이라고 여겼다. 그리고 자기가 나가서 싸우야겠다고 생각했다.

.영성이 뛰어난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안다.

.믿음은 그의 영성을 배가 시켰다. 그는 도전하는 자이고, 그는 책임을 지는 자이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이고, 위험 앞에 담대한 자이다.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 주셨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셨다. 전쟁터에서 대적들과 싸울 때 항상 지켜 주셨다.

.많은 사람이 다윗을 따르고, 다윗을 위해서는 죽는것도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10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
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네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하나님은 다윗의 시대를 이전과 같지 않게 하셨다.

-시대는 다윗 덕분에 더 활기 넘치고, 자긍심이 강화되고, 자신감이 넘치는 시대가 되었다.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을 보내면서 모든 분야에서 뒤처지고 말았다.

-심지어 그들은 시대를 역행해서 후퇴하기까지 하고 있다.

-많은 부분 우리는 일본을 닮아있다. 닮고 싶어 열망했던 때가 있었다. 일본과 한국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한국의 기독교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국에는 믿음이 있었고, 일본은 기독교 신앙을 깔아 뭉갠다.

-지금도 많은 학자들이 한국이 서구화 되어갈 것이고, 그런 조짐이 많이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목소리를 높여서이기도 하겠지만, 우리는 서구화의 길을 걷지 않을 것이다. 걸어서도 안되고, 그러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야 한다.

-우리는 더욱 더 찌한 한국인이 되는 길을 선택했다.

-우리는 그들의 좋은 점은 모방하고 더 발전시켜서 한국화를 하겠지만, 그들의 나쁜 점까지 모방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영성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윗왕조를 세우셨지만, 조선을 위해서는 대한민국을 세우셨다.

13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네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우리는 세계적 사명을 띠고 이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성령으로 되살려야 한다.

-오직 성령을 받아 자신과 자신의 가문을 새롭게 하여, 우리는 모두 금수저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럴 수 있는 나라에 태어났고, 누구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자부심과 소망으로 살아야 하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강산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이 땅에서 영광을 받으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어 시대적 사명을 감당케 하소서.
자녀들이 말씀과 믿음으로 잘 성장케 하시고, 저마다 영성이 풍부한 영혼되게 하소서.

모든 가정에 복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형통케 하시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부강하게 하소서. 아멘.

<찬양예배>

제목 : 우리는 자랑스런 하나님의 자녀

성경: 로마서 8장 9-28절

Tag:

9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 종의 영을 받은 몸;육신
- 양자의 영을 받은 몸; 몸
- 소마;몸;육체, 교회-복수.
- 성령의 사람이 되어라.
- 무엇을 하든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살맛이 난다.
-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한다.
- 시간이 지나면서 성령의 감동을 잊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에 대한 믿음이 작아진다면,

10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 (예수 그리스도의)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영
- 육신:죄로 말미암아 죽은 몸;종의 영.(사탄)
- 몸: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영, 양자의 영.(성령)

11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12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빛진 자로되 육신에게 저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13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14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5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16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17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18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19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세상은 기독교인의 출현을 기다린다.

세상은 기독교인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한다.

기독교인들이 왕되는 것은, 세속적인 자들이 왕되는 것과 다르다.

20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21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세상은 사탄에게 종노릇하기를 원치 않는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스림으로 영광의 자유를 누리기를 원한다.

22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23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24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25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26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7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롬8:9-28)

- 한국인의 자질은 성령으로 충만할 때 빛을 발한다.
- 대를 이어 율법적이지 않는 성령으로 자유를 얻은 기독교정신을 계승할 때 한국에 진정한 미래가 있다.
- 우리는 유럽과 미국의 영적 실패를 딛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
- 이미 메타버스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
- 기독교인으로서 세속에 침투해 들어가 세상을 바꾸는 자가 되어야 한다.
- 사탄이 교회에 침투해 들어오는 시대가 아니다. 이제는 바뀌었다.
- 오직 성령을 받은 자만, 죄와 저주를 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 성령 받으라!